



인석 박유봉 박사의 학문 세계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bchae@pusan.ac.kr

이 논문은 언론학 연구의 초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인석 박유봉(仁石 朴有鳳) 박사의 삶과 학문 세계를 정리하고 평가한 것이다. 일본 소피아대학교에 유학하여 신문학과를 졸업한 박유봉은 해방 이후 독일어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았으나 1950년대 후반 독일에 유학하여 다시 언론을 전공함으로써 언론 연구자의 길에 들어섰다. 1960년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박유봉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박유봉 학문 세계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독일의 공시학이며, 그는 미국 중심의 국내 학계에서 독일 공시학의 최신 이론과 연구 경향을 소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철학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매클루언의 대표 저작인 『미디어의 이해』를 비록 완역은 아니었지만 국내에 가장 먼저 번역, 소개하였다. 또한 당시 냉전 분위기 속에서도 공산주의 언론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문적 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박유봉은 초창기 언론학 분야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KEYWORDS 박유봉 • 평전 • 학설사 • 독일공시학 • 푸블리 지스틱 • 철학

1. 머리말

초창기 한국의 언론학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신 인석 박유봉 박사께서 유명을 달리 하신 것이 1994년 10월 25일(『동아일보』, 1994. 10. 26. 31면)이니 내년이면 20주기가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원로 선생님들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열고 논문집에도 특집을 기획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인석 박유봉 박사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그의 학문적 활동을 주된 관심 영역별로 정리해 보려 한다. 무릇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으로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평가자의 시선이나 관점도 주관적이고 단편성을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미화나 합리화가 되어서도 곤란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비판이 되어서도 문제다.

이 글에서는 박유봉 박사의 생전에 화갑과 고회를 기념하여 간행된 두 권의 논총, 즉 『인석박유봉박사화갑기념논총』(이하 『화갑논총』)과 고회 기념논문집 『인간, 커뮤니케이션, 사회구조』(이하 『고회논문집』)를 토대로 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고 생전에 남기신 여러 가지 논문과 책들을 대상으로 분석, 정리해 보려고 한다. 특히 최근에 개발되어 온 라인으로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하여 검색함으로써 과거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도 포함하여 인석 박유봉 박사의 학문 세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로 이용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DBpia'(<http://www.dbpia.co.kr/>), 'KISS'(<http://kiss.kstudy.com/>)로, 이를 통하여 학술 논문들을 검색하였으며, 정기간행물에 실린 글들은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과 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가온'(<http://www.mediagaon.or.kr/>)을 통해 검색하였다. 단행본 자료에 대한 정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인 'RISS'(<http://www.riss.kr/>)를 통해 구하였으며 지난 신문 자료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와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가온’의 ‘KINDS’를 이용하였다. 그 밖에 인물에 관한 정보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를 통하여 자료를 구하였다.

2. 인석 박유봉 박사의 생애

1) 출생에서 학병 탈출까지

잘 알려진 대로 박유봉 박사는 1920년 10월 10일¹ 밀성 박공9남매 중 4남으로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밀성 박씨 충헌공파로서 슬하에 2남을 두었다.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10대 후반이 되는 1930년대 후반에 소학교 교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6월 1일 자 9면을 보면 경상남도 소학교 교원시험위원장 오노켄(大野謙) 명의로 ‘소학교교원시험 제3종시험합격자’가 공지되고 있다. 여기에 보면 합격자 명단 외에 ‘성적이량자(成績佳良者)’라고 하여 수신(修身)과 산술 과목에 ‘박유봉’이라는 이름이 공지되고 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역이 박유봉 박사의 출신지인 경남이고 한자 표기도 동일하며 연령도 이때 즈음에는 10대 후반이 되니 맞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듬해인 1939년 5월 5일 자 10면을 보면 같은 소학교 교원시험에 합격자로 공지되었다. 아마도 요즘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

1 출생 시점에 대해 『화갑논총』은 10월 10일로 기록하면서 음력 5월 23일로 되어 있다. 이는 양력이나 음력 둘 중 하나가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도 양력과 음력이 5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다. 만세력으로 확인해 보니 양력 10월 10일이면 음력으로는 8월 29일이 되고 음력 5월 23일이 맞다면 양력으로는 7월 8일이 된다.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분명치는 않지만 10월 10일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학교 교원에 뜻을 두고 시험을 치러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소학교 교원 생활을 하지는 않았거나 했어도 극히 단 기간에 그쳤던 것 같다. 바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피아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한 것이 1943년 9월로 알려지고 있으니 1939년 8월에는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졸업 이후에는 학병으로 징집되어 중국 전선에 배치되어 소주 지역에 근무하였다. 그러나 시점은 명확치 않지만 소설가 이병주 등과 함께 탈출하여 해방을 맞이하였다.² 해방 정국에서는 미 군정청 문관으로도 잠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독일어 교육자 시절

해방 이후 독일어 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독일어와의 인연은 일본 유학 당시부터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직업으로 연결되었으며 나중에 독일 유학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어느 교육기관에서 독일어 교육을 맡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학회50년사』(114쪽)에 의하면 “광복 후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 부산대 전임강사”를 거친 것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역대 회장 프로필(190쪽)에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숙명여대에서 독일어 강사를 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1951년에 부산대학교 독일어 강사를 하다가 1952년에 약대 전임강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때 학병으로 소주 지역에서 일본군 60사단 수송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 30여 명이 해방 이후에도 ‘소주회(蘇州會)’라는 이름의 모임을 지속하였다. 이 모임에 관한 내용이 이병주의 소설 『8월의 사상』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소개되고 있다(이병주, 2006). 소설에서 박유봉 박사를 지칭하는 인물로 보이는 사람도 등장한다. 회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불참한 회원을 거론하며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부터 먼저 하는, 그런 만큼 서로 친한 두 사람의 독일제 박사가 보이질 않았다. 박재봉 박사는 세미나가 있어 합숙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김덕겸 박사는 두어 달 전 상처를 하고 실의에 차서 바깥 출입을 안 한다는 얘기였다”(강조는 필자)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독일제 박사 박재봉 박사가 바로 박유봉 박사를 염두에 두고 묘사한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의 내용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에 독일어 교육자를 지낸 것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어느 학교에서 근무했는지는 현재 분명치 않다. 부산대학교의 경력도 마찬가지다. 부산대학교 본부에 문의한 결과 총장 발령의 강사 이상으로 재직할 사실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1953년 4월에는 동아대학교 문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본격적인 독일어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이어 1955년 10월에는 동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독일어 교육자로서 독일의 문학 작품을 번역하였으며 독일어 교재도 편찬, 출판하였다. 괴테의 대표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번역하여 보문당에서 1956년에 발행하였으며 1957년에는 『초급 독일어 명문선(Deutsche Lesestücke für unterstufe)』을 김석환(金錫煥)과 공동으로 편찬하여 부산의 국제신보사에서 발행하였다. 독일 유학에서 귀국한 이후인 1961년에는 독일어 회화책인 *Deutsche Sprachlehre für Hochschule*를 한스 살만(Hans G. Sallmann)과 공편하여 문호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³

3) 독일 유학과 언론학

동아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연구하던 박유봉은 1957년경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던 30대 후반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독일의 뮌헨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던 것이다. 본인의 회고에 의하면 당초 유학의 목표는 언론학이 아니라 독일 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에 가서 전공을 바꾸어 언론학으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1960년 8월에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3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초급독일어명문선』은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그리고 *Deutsche Sprachlehre für Hochschule*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참조).

“Die Struktur des modernen Presswesens in Südkorea”, 즉 “남한 근대언론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이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는 1928년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현준과 1959년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규환에 이어 세 번째였다(『한국언론학회 50년사』, 149~157쪽).

학위를 마친 박유봉 박사는 바로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60년 9월 14일 자 1면에 실린 ‘내방(來訪)’ 코너의 기사에 의하면 동아대학교 부교수인 박유봉 씨가 서독 뮌헨대학교에서 신문학을 연구하고 귀국하여 인사차 회사를 방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마 늦어도 9월 초순에는 귀국하여 신문사에 들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귀국 후에는 일단 동아대학교에 복직하여 1960년 10월에는 동 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로 승진하였다.

4) 언론학자로서의 삶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신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박유봉 박사는 1963년 4월 1일 한양대학교 신문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 해 한양대학교는 문리과대학에 신문학과를 신설하였는데, 그 초대 학과장으로 박유봉 박사가 부임한 것이다(『한국언론학회50년사』, 114쪽). 이로써 언론학자와 교육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한양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한양대신문사 주관을 겸하고 1966년 3월부터는 한양대학교 재단 소유의 『대한일보』 기획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였다.

1968년 3월에는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이 개원하면서 교수로 초빙되었다. 이어서 1975년 3월에는 신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신문학과가 개설되면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교수로 소속을 옮겨 1986년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재직하였다. 정년퇴직 후에는 1986년 3월부터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내기도 하였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69년부터

한국신문학회 이사를 맡아서 활동하다가 1973년 4월 21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되어 1975년 6월 14일까지 2년간 한국신문학회를 이끌었다. 1984년 6월 2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로 선임되었다(『한국언론학회50년사』, 115쪽). 언제부터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독일 신문학회에도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학회 활동 외에도 1972년 3월부터 한국신문연구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화갑논총』 연보) 1982년 5월에는 문화방송 자문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고희논문집』 연보).

3. 인석 박유봉 박사의 학문 세계

1) 독일 공시학의 도입과 소개

박유봉 박사 학문세계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독일 공시학이다. 독일에서 매스컴을 연구하고 학위를 마쳤기에 해방 이후 최초로 독일의 공시학을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체계적으로 도입, 소개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광복산과 이해창이 먼저 독일 신문학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일본 소피아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들로서 일본 유학도 하였지만 독일에 가서 직접 수학하고 온 박유봉과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공시학이란 과거 인쇄매체 중심의 신문학을 넘어서 여러 매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공시 현상, 즉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경향을 일컫는다. 인쇄매체 중심의 매체 환경에서 20세기 들어 전파매체가 등장하였고 특히 2차 대전 이후로는 텔레비전이 급성장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자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며 나타난 학문적 성격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양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후부터 박유봉은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독일 공시학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1965년과 1966년에 『신문연구』에 두 번에 걸쳐 ‘독일 신문학의 선구자들’을 소개하였으며 1966년

에는 같은 『신문연구』에 “신문학에 있어서 푸블리찌스틱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독일 공시학의 이론적 경향을 소개하기에 나섰다. 1968년 서울대학교가 발행하는 『신문연구소학보』에 “Publizistik의 이론적 전개”라는 논문을, 이어 1970년에는 신문학회가 발행하는 『신문학보』 3호에 “신문학의 푸블리찌스틱에로의 확대”라는 제목으로 독일 공시학의 학문적 경향을 소개하였으며 같은 호에 독일 신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에밀 도비파트(Emil Dovifat)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글도 게재하였다. 1971년에는 광복산 교수의 화답을 기념하며 출간한 『언론학개론』에 “푸블리찌스틱 과학의 연구동향”을 집필하였으며 1972년에는 “푸블리찌스틱학의 성립과 구조”(『신문연구』 18호, 봄호)를, 그리고 1975년에는 “뮌헨 신문학과와의 체계이론”이라는 논문을 『신문연구』(20호, 가을호)에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신문학보』를 통해 독일의 공시학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1974년 7호에 “독일에 있어서의 홍보학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1985년에는 “Publizistik과 Mass Communication이론의 비교 연구”(19호)를 발표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해 갔다.

이러한 논문들을 통하여 박유봉은 독일 공시학이 성립, 발전해 가는 역사적 맥락과 그 특징 및 경향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매스컴 중심의 미국 경향과 비교하면서 매스 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시, 즉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포괄하는 독일 공시학의 특성과 장점을 강조하였다. 『신문학보』 3호에 실린 논문에서 박유봉은 푸블리찌스틱학을 “장글 속의 드림의 푸브리찌스틱에서 고도 산업화사회의 매스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시현상을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그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순수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퍼스펙티브가 왕왕 소홀이 되어 왔다”고 비판하였다.

2) 커뮤니케이션 철학 탐구

관념론적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 수학한 박유봉 박사는 커뮤니케이션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독일 유학에서 귀국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글도 1962년 당시 재직 중이던 동아대학교가 발행하는 『동아』 지에 실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야스퍼스의 철학”이라는 제목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철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 분석한 글인 것으로 보인다.

야스퍼스를 중심으로 한 독일 철학자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지속되어 1977년에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철학적 소고 -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신문연구소학보』 14집에 발표하였다. 저널리즘 중심의 연구 경향에 치우쳐 있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학문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철학에 대한 관심은 1973년 매클루언의 『미디어의 이해』를 번역,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1973년 휘문출판사가 펴낸 『세계의 대사상』이라는 전집 출판물의 제24권으로 박유봉은 매클루언의 『미디어의 이해』를 절반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하여 번역, 출판하였다.⁴ 이 책에는 매클루언 외에도 한스 제들마이어(Hans Sedlmayr)의 『중심의 상실』과 루이스 맘포드(Lewis Mumford)의 『기술과 문명』이 함께 번역되었는데, 박유봉은 『미디어의 이해』를 번역하였을 뿐 아니라 세 명의 역자를 대표하여 ‘현대문명과 인간 상황’이라는 제목의 서문도 집필하면서 이 세 철학자의 사상을 집약해서 소개하였다.

그동안 매클루언의 저작이 국내에 번역, 소개된 것은 1977년 박정규에 의해 번역되어 삼성출판사의 『세계사상전집』 제44권으로 출간된 것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도 역자 서문에서 “지금까지 매클루언의 이론이나 사상은 우리나라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뿐, 그의

4 이 책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저서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물론 박정규의 번역은 매클루언 원저의 전문을 번역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규의 이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박유봉은 매클루언의 대표적 저작인 『미디어의 이해』를 전문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가장 먼저 번역, 출판한 것의 의의는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973년에는 데이비드 리스만의 『고독한 군중』을 번역하여 휘문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화감논총』, 『고희논문집』의 연보 참조). 철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박유봉 박사는 철학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1974년 휘문출판사에서 『현대철학사전』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981년에는 휘문출판사가 펴낸 『세계의 대사상』 시리즈 제32권으로 『철학대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이 책에서 박유봉 박사는 중앙대학교 교수 최민홍과 함께 책임 편집인의 역할을 맡았다.

3) 언론학 교과서 저술

박유봉 박사는 전술한 독일 공시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틀의 교과서 저술 작업도 활발히 벌이며 미국식 연구 경향과의 접합을 시도하였다. 가장 먼저는 1965년 일조각에서 펴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이에 해당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 체계를 전체적으로 소개한 이 책은 신문방송의 실무 교과서와는 달리 매스컴 기초 이론을 광범위하게 소개하는 개론서로서 매스컴이라는 이름으로는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차배근 외, 1977, 30쪽). 당시 신문학회는 이 책을 포함하여 그 해에 출판된 김봉기의 『한국신문의 역사』와 김규의 『텔레비전: 이론과 실제』라는 세 책의 합동 출판기념회를 1965년 11월 20일 신문회관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65. 11. 16. 5면). 전체 2편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편 총론에서 매스컴의 개념과 매스컴 문화사를 정리하고 있으며 제2편 각론에서는 저널리즘과 방송/영화, 매스컴과 대중사회, 각국의 매스컴 현황, 매스컴과 여론, 선전·PR·광고 등으로 나누어 매스 커뮤니케이

선과 관련된 제반 측면을 균형 있게 정리,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출판된 언론학 교과서는 1974년의 『신문학이론』이다. 4인 공저의 이 책의 다른 공저자들은 서정우·차배근·한태열로서 모두 미국에서 수학한 분들이다. 이들과 함께 공동 저술함으로써 독일 공시학과 미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접합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1985년에도 전정판을 발행하며 각 대학 언론 관련 학과의 신문이나 저널리즘 과목의 교재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언론학 교과서 편찬 작업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985년에는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원론』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외국의 새로운 학문 경향을 번역하는 소개하는 작업도 벌였다. 1976년에는 독일의 학자 말레츠키(Gerhard Maletzke)의 저서를 김진홍과 공동으로 번역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법문사에서 발행하였다. 독일의 연구자이면서도 미국식의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말레츠키의 이 책을 번역함으로써 박유봉 박사는 독일 공시학의 최근 변화되는 경향을 소개한 것이다. 이 책은 학계와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1991년까지 여러 차례 판을 거듭하며 발간되었다. 1977년에는 야스퍼스와 토인비 등 여러 석학들의 매스컴에 대한 비판적 글들을 모아 김진홍과 공동으로 번역한 『반매스컴론』을 전예원에서 출판하였다. 이어 1979년에는 독일의 전통적인 신문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에밀 도비파트의 *Zeitungslehre*를 정대수와 공동으로 번역하여 『신문원론』이라는 제목으로 전예원에서 출판하였다.

4) 출판문화의 중요성과 대중 교양

박유봉 박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출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행하는 전문지 『출판문화』에 기고한 글들을 통해서 출판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외국 출판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출판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 애썼다. 이 잡지 1965년 12월 호

에는 “시련 속에서도 의욕충일, 정부와 신문은 출판의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1965년의 출판계를 총결산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판계가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와 언론이 출판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6년에는 같은 잡지의 외국 출판계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서독의 전통 있는 레크람문고판을 소개하였다.

1986년 3월 호에는 “출판문화의 창조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출판의 본질과 역사, 그리고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박유봉은 출판이란 모든 문화의 근원이자 출발점이 된다면서 대중사회의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의 창조적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된다고 강조하였다(박유봉·채백, 1989, 168~175쪽).

박유봉 박사의 출판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글들은 출판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출판계의 의뢰에 의해서 출판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론서를 집필하여 1989년에 『현대출판학원론』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 출판 관련 서적들이 대부분 실무 관련 지침서들 위주였던 국내 현실에서 최초로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해 문공부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1989. 11. 24. 12면).

출판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서 박유봉 박사는 실제로 출판물을 통한 대중 교양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중에서도 위인들의 생애를 소개하는 작업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가장 먼저는 1965년 『이상재론』⁵을 서울 박영사에서 출판하였다(『화갑논총』 연보). 월남 이상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1979년 신화출판사에서 펴낸 전집 『역대인물한국사』 8권에서 이상재에 관해 ‘민중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같은 해 일신각에서 펴낸 『역사의 인물』이라는

5 이 책은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단행본이기보다는 위인전기를 다룬 책의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의 서지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의 전집에서도 그 7권에서 “민중의 영원한 반려”라는 제목으로 이상재를 소개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참조).

또한 인촌 김성수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쳐 기고하였다. 1979년 일신각의 전집 『역사의 인물』 9권에서 김성수에 대해 “민력 배양, 민족경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하였으며 1983년 양우당이 펴낸 『한국인물사』 시리즈의 9권으로 발행된 『현대의 인물2』에 같은 “민력 배양, 민족경제”라는 제목으로 김성수를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는 대표 저자로 표기되기도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이밖에도 박유봉 박사는 대중들의 인문학적 교양을 위한 저술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1970년 박영사에서 펴낸 『처세: 아름다운 여로』라는 제목의 책에 편저자로 참여하였으며 1973년에는 신태양사가 펴낸 『현대인의 인생론』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물 8권으로 『인생과 에티켓』이라는 제목의 책을 책임 편집하였다. 1984년에도 소설가 김동리가 편찬하고 한국출판공사에서 출판한 『젊은이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책에 “전통과 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1980년에는 『80년대의 비즈니스 사회』라는 책을 번역하여 태창문화사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미래의 비즈니스 동향과 방향을 주제로 헨리 키신저 등 저명인사 5명의 논문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미래를 진단하는 내용이다.

5) 공산주의 언론에 대한 비판

박유봉 박사의 학문 활동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언론에 대한 소개와 비판이다. 대개 197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1978년 『광장』 지 56호에 발표한 “문혁이후의 중공의 매스컴”이라는 글이었다. 이후 공산주의 언론에 대한 관심을 더욱 체계화시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1982년에는 “공산주의적 언론의

이론적 배경과 시스템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가 발행하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4권 1호에 발표하였으며 1984년에는 『신문학보』 17호에 “공산주의적 언론이론과 소련의 언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신문학보』 17호의 이 논문에서 박유봉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론과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소련 언론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공산주의 언론은 “사회발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이라기보다 공산주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공산주의 언론에 대한 관심은 이후 관련 서적의 번역 작업까지 이어졌다. 1981년에는 『공산주의언론비판』이라는 제목의 책을 형설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독일의 안톤 부젝(Anton Buzek)이 1965년에 발간한 *Die Kommunistische Presse*를 번역한 이 책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선전 및 언론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라 언론에 어떠한 역할과 과제가 부여되는지를 분석하고, 소련과 동구권 언론의 현황을 소개한 책이다. 이어서 1983년에는 『마르크스주의와 권력의 장악』이라는 제목의 책을 같은 형설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 독일 뮌헨대학의 총장을 오래 역임한 바 있는 니콜라우스 로브코비치(Nicolaus Lobkowitz)의 저서 *Marxismus und Machtergreifung: Die Kommunistische Weg zur Herrschaft*(1978년 간행)를 번역한 책이었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공산주의의 실제 역사를 비교하면서 이론을 권력의 장악, 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공산주의 언론에 대한 박유봉의 이러한 학문적 관심과 업적은 당시 냉전 체제하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논의만 가능하던 상황 속에서 그 이론과 실재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6) 저널리즘 교육에 대한 관심

박유봉 박사는 저널리즘 교육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 여기서 저널리즘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언론인을 양성하는 대학의 언론학 교육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의 세 가지 차원이다. 대학의 언론학 교육에 대해서는 당시가 초창기로서 막 체계를 형성해 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언론학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박유봉 박사는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한국 언론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글로는 1965년 3월 『신문평론』에 실은 “저널리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973년의 “신문학교육은 재검토 돼야 한다”(『저널리즘』 통권7호, 여름), 1977년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논총에 게재한 “신문학과의 창설과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황 진단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서구의 언론학 교육을 소개하면서 한국 언론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진력하였다. 그 예로는 1971년 『신문평론』 38호(1971년 가을호)에 실린 “서구 신문학교육과 기자훈련”이라는 논문과 1979년 최준 교수 정년기념논문집에 게재한 “세계신문학교육의 개관”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글들을 통해 서구의 언론학 교육 내용과 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 언론학 교육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박유봉 박사는 언론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여러 차례 논문과 기고 활동을 하였다. 1965년에는 『교육문화』에 ‘신문과 교육’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으며 1978년에는 “교육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신문연구소 학보』 15집)을 발표하였다. 또한 1978년에는 “청소년문제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정경연구』에 발표하였으며 1983년에는 “한국교육과 매스컴 기능”이라는 글을 『새교육』에 기고하였다. 이러한 글들을 통하여 박유봉은 매스컴이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

여 학교 교육에서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언론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박유봉 박사는 미디어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으나 중앙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소장 곽복산)가 1970년 8월 1일부터 5일간 전국의 남녀 신문방송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충남 대천에서 개최하였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박유봉 박사는 최준, 최석채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70. 7. 23. 5면).

그는 언론인 재교육에도 적극적이었다. 1968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개설부터 교수진으로 참여하면서 언론인들을 재교육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은 1970년대 중반까지 언론인들을 재교육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던 교육 기관이었다. 언론인 재교육은 각종 저널을 통한 집필 활동으로도 이어졌다. 여러 글들을 통하여 바람직한 직업 규범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1976년에는 『신문평론』(66호)에 “독일의 신문·방송·영화연구기관과 기자 교육”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독일의 언론인 재교육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기고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윤리, 직업적 소명감을 강조하였다.

언론인 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언론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1979년에는 “대중매체와 국민정서의 순화”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에서 농촌이 소외되고 있으며 오락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을 비판하였다(『경향신문』, 1979. 6. 2. 5면). 1980년에는 일제기 민간지 역사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경향신문』 1980년 3월 4일 자 5면에 게재한 “민간지 60년의 반성”이라는 칼럼을 통해 문화정치의 산물로서 민간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민간지들이 지향했던 문화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1930년대 후반에 전개된 친일 논조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당시 일제기 민간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최민지의 『일제하 민족언론사론』(1978)이 출판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아직 전통적인 ‘민족지 신화’가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

목할 만한 시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 박유봉 박사는 박정희 정권에 의한 언론 통제도 비판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드물게 외적 작용, 즉 정치권력에 의해 언론에 대한 정비가 단행되었다는 점과 고차원적인 철저한 언론 통제를 통해 언론의 정론성과 투쟁성이 거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맺음말

인석 박유봉 박사는 그 세대 대부분의 삶이 그러했듯이 격동의 시대를 파란만장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다. 고성에서 태어나 교사의 꿈을 품고 소학교 교원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바로 일본 유학의 길에 나섰고, 공부를 마치고는 학병으로 끌려가 일본군으로 복무하다가 탈출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독일어 교육자의 길을 걷다가 독일 유학을 결심하고는 언론학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언론학 연구자로서는 초창기 세대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독일 공시학의 전문가로서 그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소개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 성과들을 내놓았다. 커뮤니케이션 철학, 교육의 문제, 공산권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집필 활동을 통해 많은 논문과 저작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철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당시 학계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었으며 매클루언의 대표 저작 『미디어의 이해』를 완역은 아니었지만 가장 먼저 번역, 소개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산권 언론에 대한 연구 활동도 비록 냉전적 사회 분위기에서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당시로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학문적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다양한 관심과 활동은 본인의 학문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이기도 하였지만 당시 언론학 분야가 초창기의 정착 단계로

서 연구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전문화되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
문적 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박유봉 박사는 초창기 언론학 분야의 학문
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이병주 (2006).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파주: 한길사.
- 인석박유봉박사 고회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0). 『인간, 커뮤니케이션, 사회 구조』. 서울: 보성사.
- 인석박유봉박사 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0). 『인석박유봉박사 화갑기념논총』. 서울: 전예원.
- 차배근 외 (1977). 『한국 신문학 50년사: 희관임근수박사 화갑기념논총』. 서울: 정음사.
- 최민지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 한국언론학회50년사 편찬위원회 (2009).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 서울: 한국언론학회.
- McLuhan., Marshall. (1964). *Understanding Media*. 박정규 옮김 (1977). 『미디어의 이해』. 서울: 삼성출판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총독부관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미디어가온 <http://www.mediagaon.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최초 투고일: 2013.06.28

논문 수정일: 2013.08.05

게재 확정일: 2013.08.08

부록

인석 박유봉 박사의 주요 저술⁶

저서 및 역서

- 1956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역서(서울: 보문당)
- 1957년 『초급 독일어 명문선』(Deutsche Lesestücke für unterstufe). 공저(부산: 국제신보사)
- 1961년 Deutsche Sprachlehre für Hochschule. (문호사, 1961)
- 1965년 『매스 커뮤니케이션』. (서울: 일조각, 1965)
- 1970년 『처세: 아름다운 여로』. 편저(서울: 박영사, 1970)
- 1973년 『고독한 군중』. 역서(서울: 휘문출판사, 1973)
- 1973년 『미디어의 이해』. 역서(서울: 휘문출판사, 1973)
- 1973년 『인생과 에티켓』. 편저(서울: 신태양사, 1973)
- 1974년 『신문학이론』. 공저(서울: 박영사, 1974)
- 1974년 『현대철학사전』, 편저(서울: 휘문출판사, 1974)
- 1976년 『매스 커뮤니케이션심리학』. 공역(서울: 법문사, 1976)
- 1977년 『반 매스컴론』. 공역(서울: 전예원, 1977)
- 1979년 『신문원론』. 공역(서울: 전예원, 1979)
- 1980년 『80년대의 비즈니스 사회』. 역서(서울: 태창문화사, 1980)
- 1981년 『공산주의언론비판』. (형성출판사, 1981)
- 1981년 『철학대사전』. (서울: 휘문출판사)
- 1981년 『21세기의 설계, 한국인의 생존 조건』. 공저(성화출판사, 1981)

⁶ 이 목록은 박유봉 박사가 남긴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된 저작물들만을 정리한 것이다.

- 1983년 『마르크스주의와 권력의 장악』. (형설출판사, 1983)
- 1985년 『현대매스커뮤니케이션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1989년 『현대출판학원론』. 공저(보성사, 1989)

학술논문

- 1960년 Die Struktur des modernen Pressewesens in Südkorea(München, 1960).
- 1961년 칼 야스퍼스의 철학: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동아』(동아대학교), 1월 10일, 194~198쪽.
- 1963년 Die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Einflüsse auf die Presse in Südkorea. 『동아논총』 제1집, 2953쪽.
- 1965년 저널리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신문평론』 (한국신문연구소) 통권 제10호 (1965년 3월 호).
- 1965년 신문과 교육. 『교육문화』(1965년 10월 호).
- 1965년 이상재 론. (서울: 박영사, 1965).
- 1965년 독일신문학의 선구자들-전전편. 『신문연구』 <관훈클럽> 통권 제9호 (1965년 가을호), 93~100쪽.
- 1965년 시련속에서도 의욕충일, 정부와 신문은 출판의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 『출판문화』(1965. 12월 호), 6~7쪽.
- 1966년 독일신문학의 선구자들: 전전편 속. 『신문연구』(관훈클럽) 통권 제10호 (1966년 봄호), 129~136쪽.
- 1966년 유행되고 있는 레크람문고판 : 내가본 세계출판(서독편). 『출판문화』 (1966. 2·3월 호), 12~13쪽.
- 1966년 신문학에 있어서 퍼블리시스터의 문제점. 『신문연구』(관훈클럽) 통권 제11호 (1966년 겨울호), 136~146쪽.
- 1968년 Publizistik의 이론적 전개. 『신문연구소학보』(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제4집, 13~28쪽.
- 1970년 신문학의 퍼블리시스터에로의 확대. 『신문학보』(한국신문학회) 제3집, 5~17쪽.

- 1970년 Emil Dovifat의 생애와 업적. 『신문학보』(한국신문학회) 제3집, 111 ~ 136쪽.
- 1971년 서구 신문학교육과 기자훈련. 『신문평론』(한국신문연구소) 통권 제38호(1971년 가을호), 78 ~ 84쪽.
- 1971년 푸블리찌스틱 과학의 연구동향. 『언문학개론』(곽복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서울: 일조각, 1971), 48 ~ 64쪽.
- 1972년 푸블리찌스틱학의 성립과 구조. 『신문연구』(관훈클럽) 통권 제18호(1972년 봄호), 235 ~ 246쪽.
- 1973년 신문학교육은 재검토 돼야 한다. 『저널리즘』(한국기자협회), 통권 7호(1973년 여름호), 24 ~ 32쪽.
- 1974년 독일에 있어서의 홍보학(Publizistik-wissenschaft)의 성립과 발전. 『신문학보』(한국신문학회) 제7집, 5 ~ 29쪽.
- 1975년 뮌헨 신문학파의 체계이론. 『신문연구』(관훈클럽), 통권 제20호(1975년 가을호), 144 ~ 155쪽.
- 1976년 독일의 신문-방송 영화연구기관과 기자교육. 『신문평론』 통권66호(1976년 5월 호), 44 ~ 48쪽.
- 1977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철학적 소고 -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신문연구소 학보』(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제14집, 51 ~ 66쪽.
- 1977년 신문학과의 창설과 발전. 『한국신문학 50년사』(희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논총)(서울: 정음사, 1977), 205 ~ 222쪽.
- 1978년 문혁이후의 중공의 매스컴. 『광장』 제56호, 37 ~ 40쪽.
- 1978년 교육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소고. 『신문연구소학보』(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제15집, 7 ~ 18쪽.
- 1978년 청소년문제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에 대한 연구. 『정경연구』.
- 1979년 민중의 아버지. 『역대인물한국사』 제8권 (서울: 신화출판사).
- 1979년 민중의 영원한 반려. 『역사의 인물』 제7권 (서울: 일신각).
- 1979년 민력 배양, 민족경제. 『역사의 인물』 제9권 (서울: 일신각).
- 1979년 대중매체와 국민정서의 순화. 『국민윤리연구』(국민윤리교육연구회) 제8호, 103 ~ 114쪽.

- 1979년 세계신문학교육의 개관. 『최준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서울: 최준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77~98쪽.
- 1980년 민간지 60년의 반성. 『경향신문』 1980년 3월 4일 자.
- 1982년 공산주의 언론의 이론적 배경과 시스템 분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4권 제1호, 187~222쪽.
- 1983년 한국교육과 매스컴 기능. 『새교육』 4월, 12~18쪽.
- 1984년 공산주의적 언론이론과 소련의 언론. 『신문학보』 제17호, 5~25쪽.
- 1984년 전통과 인생. 김동리 편 『젊은이들을 위하여』 (서울: 한국출판문화공사).
- 1985년 Publizistik과 Mass Communication이론의 비교 연구. 『신문학보』 제19호, 5~28쪽.
- 1986년 출판문화의 창조성. 『출판문화』(1986년 3월 호), 20~23쪽.